

# 전남도 내년예산 6조5303억 편성... 4% 증액

### 내달 16일 도의회서 확정 일자리·SOC 예산 집중 농업·관광·문화사업 줄어

전남도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5년 본예산 6조2820억원 대비 2483억원(4.0%)이 증액된 6조5303억원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5조6507억원으로 2015년(5조4740억원)보다 1767억원(3.2%), 특별회계는 8796억원으로 2015년(8080억원)보다 716억원(8.9%) 증가했다.

전남도는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복지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선 6기 도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 '전략적인 자원 배분' 등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149억원이 증액된 1357억원을 반영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건강 분야는 901억원을 증액해 1조7741억원을 편성했으며, 교육 여건 개선 분야는 219억원이 증액된 1839억원을 반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322억원이 증가해 6121억원을, 일반 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도 41억원이 증액된 8358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8억원 감액된 1조748억원, 관광·문화사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도 186억원이 줄어든 31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는 32억원이 감액된 2650억원, 환경조성 분야도 89억원이 줄어든 4584억원이었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에서 제외했

다"며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조 요청하는 등 국고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제300회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윤현석기자chadol@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개막 8일 영암 F1경주장 샵트랙에서 개막된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 선수들이 개막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관계자 3000여명과 자동차 550여대가 참가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여대 반쪽 주차장' 추가 건립 추진 논란

### 광주시, 협약체결 동의안 시의회 제출 시의회 "규정 위반... 예산 의결 못해"

광주시가 공사비 부족으로 이른바 반쪽 주차장으로 전락한 광주여대 부설 주차장에 대해 추가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광주시가 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린 사업이어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광주여대학교 다목적 체육관 부설 주차장으로 지난해 5월, 사업비 60억원을 대학 측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시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관리운영 주체나 사업비 부담 등을 규정한 협약도 없이 진행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고 결국 시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30억원)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주차장 건립사업은 학교 측이 부담한 30억원에다 기반시설조성비, 소방설비 등 법적경비 8억5000만원만 시가 부담한 채 50% 남짓 공정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최근 광주여대와

사업비 부담, 관리운영 주체 등이 담긴 협약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시 부담금(21억5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규정 위반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주경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시가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의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하계U대회를 치르면서 개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 부지를 이용해 체육관을 짓는 등 부지 매입비를 절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정례회 도청·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전남도의회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9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만태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전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 10·28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합평 출신 정경희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게 된다. 회기 동안 도청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도청과 도교육청의 올해 정리 추경 예산안 및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윤현석기자chadol@

## 지방 정가

### "시교육청 관용차 방안 운영 재정난 부추겨"

#### 문상필 시의원 제기

광주시교육청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관용차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 소속 문상필(북구 3) 시의원은 지난 6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11개 기관에서 관용차량을 한 달 평균 4~13회 운행하는데,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6억3400만 원이나 된다"며 "방만한 관용차 운영이 시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용차량은 본청 7대, 동·서부



교육지원청 각 2대, 산하기관 13대, 체육고 등 학교에 8대로 모두 32대다.

그는 "관용차 32대의 1년간 운행횟수는 1233회로, 한 달 평균 4~13회 뿐"이라며 "하지만 운전원들에게 최소 4913만원~6749만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운전원들이 한번 운전으로 37만원~130만원이 넘는 돈을 받는 셈인데,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시재생, 사회·문화·환경측면서 이뤄져야"

#### 김동찬 시의원 지적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이 그간 주거환경 개선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동찬(북구 5) 부의장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시재생 개념은 부수고 짓고 고치는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문화·생태·디자인건축재생 등 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전환, 도시재생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



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70년대 경제위기로 침체의 늪에 빠진 도시인 빌바오는 상점문화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낙후산업도시에서 한해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도시로 거듭났다"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빚는 임동·신안 등은 야구 또는 야구용품의 거리 등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운암·용봉동은 문화·예술·공연의 거리 등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도, '칭다오 aT물류센터' 수출전진기지로

### 농수산물품 홍보관 설치

전남도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5월 산동성 칭다오(靑島)시에 설치한 '칭다오 한국농수산물물류센터(이하 칭다오 aT물류센터)'를 전남산 농수산물품의 중국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일 "이 지사의 최근 칭다오 aT물류센터 방문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칭다오 aT물류센터와 '전남 우수 농수산물품 중국 진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칭다오 aT물류센터는 냉동, 냉장시설편을 갖춘 1만1614㎡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칭다오 류팅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해 중국 주요 대도시 소비시장으로의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해상과 내륙 운송, 통관, 보관 등 일괄처리(One-Stop)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검역국(C.I.Q.) 공인창고로 지정돼 빠른 통관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출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전남 중소 농수산물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칭다오 aT물류센터에 현지 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30㎡ 규모의 '전남 농수산물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및 농어업인의 중국시장 현장 경험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남산 농수산물품 판촉·홍보행사 및 소비자 반응조사(마켓 테스트), 통관 및 위생검역 대행, 바이어 발굴과 중국 내 유통 지원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도 칭다오 aT물류센터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광주안과**

#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